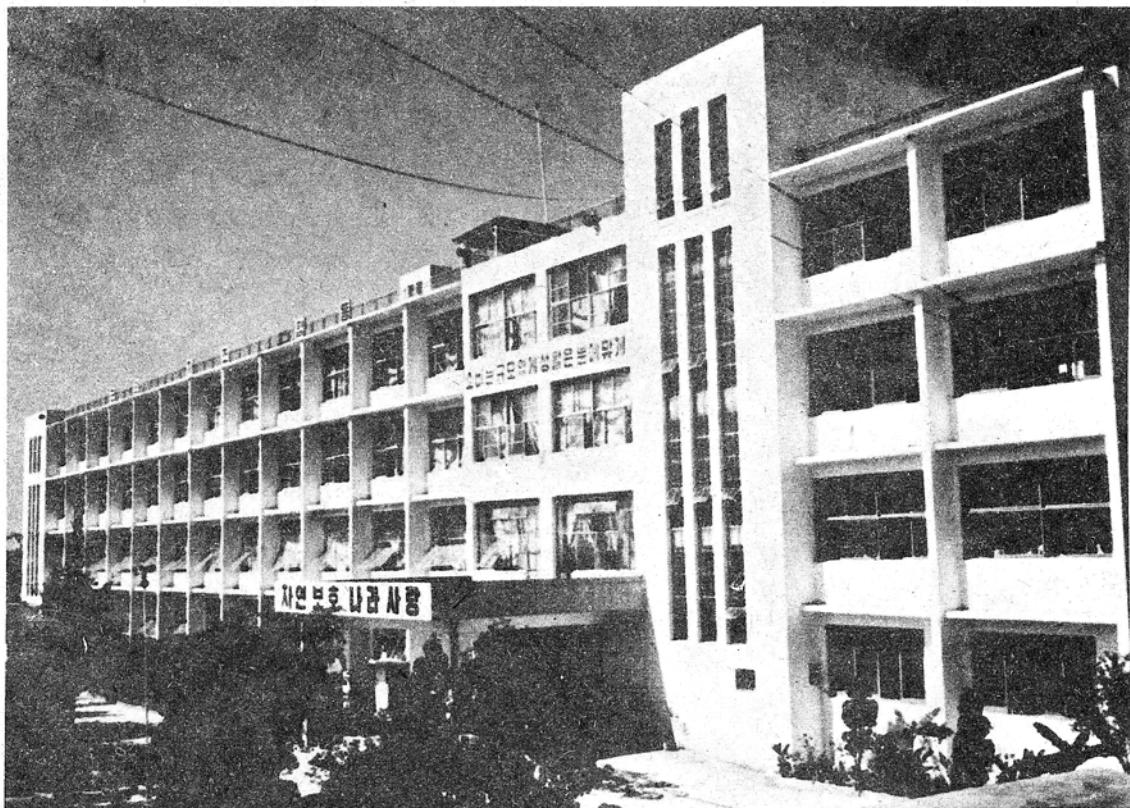


- 창간호 -

삼선

부지런하자
교훈성실하자
서로돕자



〈서시〉

눈오는 날 소묘

- 삼선인의 꿈에 실어 -

교사류근택

산사어로 눈, 눈
적막강산에서만 살아온 흘어미의
눈썹 기슭에 해설픈 미소에

먼여로가 끝난 바람처럼
숨이 차서 초옥 지붕에 안진

꽃잎의 설레이는 가슴 위에
털여 누르는

그리운 님의 침묵이나 삽질 것을

형 - 해서 마냥 슬픈 여인은

물동이이고

샘터에 나갔더라도

눈이 녹으면
내일은 황혼。

그래도
산꼭에 울리는 메아리는
성대가 약해서
섬세한 손길 흔들며
눈이 내린다.

기웃한 설악에
설익은 내 꿈은....

<권두언>



할아버지, 이리 앉으세요.

교장 원사 봉

1

나는 버스를 이용할 때가 많다. 버스에 올라타면 가끔 「할아버지, 이리 앉으세요」란 말을 듣고 자리를 양보 받을 때가 더러 있다. 그럴 때마다 우선 나는 「할아버지……」란 말에 저항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흐뭇하기도 하다.

이러한 흐뭇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이 업은 부인이나 노인이 올라왔는데도 학생이나 젊은 청년이 그냥 못본 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괘씸하기 짹이 없다.

「삼강호윤」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우리는 옛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칭송을 받아 온 나라의 국민인데 이럴 수가 있겠는가. 특히 학교에서는 그렇게 「거리·교통질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일반 청년보다 학생들이 더 많이 「경로석」을 차지하고 있으니 서글퍼지기도 한다.

2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국민 의식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3대 부정 심리 추방 운동이 한창이다.

3대 부정 심리란, 무질서 심리·부패 심리·물가오름세 심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정의사회를 구현해서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또한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와 같은 3대 부정 심리를 과감히 추방해야 하는 것이다.

이 3대 부정 심리 추방 중에서 학생들이 우선 실천해야 할 것은 무질서 심리 추방인데 이것은 우리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무질서 심리를 추방하고 우리 생활 주변의 작은 질서부터 바로잡아, 질서의 생활화를 기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로 「거리·교통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즉, 육교·지하도와 횡단보도를 바르게 걷고, 실내와 복도에서는 뛰지 말아야 하며, 출서기·차례지키기를 철저히 하고, 차내에서는 큰소리 내지 말고 정숙을 지키며,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둘째로는 「행락 질서 확립」을 해야하는데, 오락실이나 영화관 등 유홍장에 출입을 안 하고, 복장 및 용의를 단정히 함은 물론 퇴폐적인 노래를 안 불러 어른들의 이맛살을 찌프리게 하는 풍기문란이 없어야 하겠고, 행락지에서는 오물을 안 버리고 환경보호에 앞장서,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세째로는 「경기장 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한다. 경기장 질서를 지켜 난동 소란을 안 피우고, 경기장내의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치우고, 화장실을 깨끗이 이용함은 물론 홍분해서 병이나 돌 같은 것을 던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네째로는 「기타 공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길이나 유원지, 공원, 학교 등지에 휴지나 껌 같은 것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공공 시설물에 낙서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 시설물을 자기 것과 같이 아낄 줄 알아야 한다.

3

오늘날 소위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나라가 잘 살고 있는 것은 거짓 된 것이 아니다. 그 밑바닥에는 공중 도덕과 질서가 굳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 곳에나 휴지를 버리고 가래침을 뱉고 씹던 껌을 함부로 버리고 출서기, 차례지키기도 못할 뿐만 아니라 차내에서 노인 앞에서 버젓이 자리 잡고 졸고 있는 채하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우리 나라는 결코 우리보다 더 성실 근면하고, 공중도덕과 질서를 잘 지키며, 친절하고 준

법 정신이 강한 나라를 따라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도 이젠 국민소득 1,500달러가 넘어서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발돋움을 하고 있는 나라이며 서울의 인구만도 800만이 넘는, 세계적인 대도시이다.

오늘도 우리의 산업역군들이, 그리고 우리의

상품들이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코리아」의 뿌리를 내려고 있다.

그렇다면 문란한 우리 나라의 거리·교통 질서, 행락 질서, 경기장 질서, 기타 공공 질서를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우리 한번 심각히 생각하여 학생 시절부터 무질서 심리를 과감히 추방해야 되겠다.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3대 부정 심리 즉, 무질서 심리, 부패 심리, 물가 오름세 심리를 과감히 추방해야 하는 것이다. 이중에서 학생들이 우선 실천해야 할 것은 무질서 심리의 추방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생활 주변의 작은 질서부터 바로잡아, 질서의 생활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이임사〉



순수한 사랑과 우정

학생회장 손 동 기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가슴 그득한 야망으로 불타던 이 해도 지나가고 이제 몇 장 남지 않은 말력이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학생회장 1년.....

지금 돌아보면 내가 나의 길을 걸었다가 보다는 그저 하나의 진 행렬에 끼여 훌려 온 듯합니다.

즐거움, 슬픔, 기쁨, 그리고 피로움으로 찌들린 이 삼선의 교정, 나의 형들이 또 그 형의 형들이 떠났듯이 우리도 이 보금자리를 떠나야 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학생회장이라는 큰 직책을 맡은 후 아무 것도 남기지 못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몇 마디 남기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사랑할 때에 모든 잘못은 덮어지고 용서 받을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우정을 알량한 이해 타산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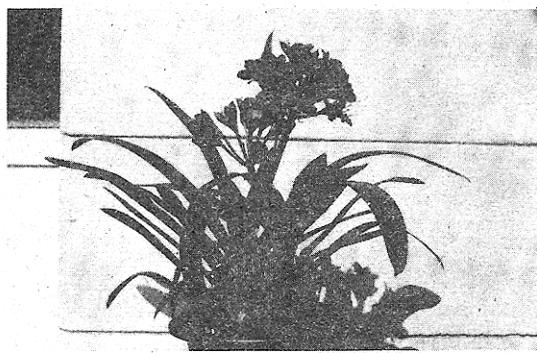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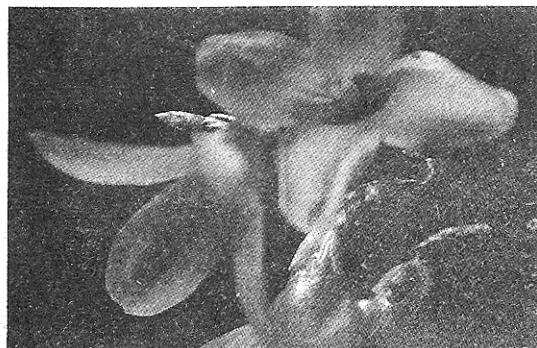
시키지 마십시오. 그저 좋은 사람, 좋아하고 의로운 사람에게 정을 주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또 우리는 언제나 우리입니다.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더라도, 진실과 거짓이 되더라도 우리는 우리는 우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후회하지 않을 오늘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비록 참기 힘드나, 또 기나긴 것 같지만 내일은 반드시 오고 또 꼭 찾아와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꿈을 지니고 오늘에 성실할 때 여러분은 보다 더 탐스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신합니다.

이상 몇 가지 당부를 하였지만 예전의 선배님들의 부탁을 내가 하나 둘 잊었듯이 동생들도 잊겠지요. 하지만 단 한번만이라도 다시 기억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후배들이여!

지금 이 곳에 굳게 서십시오. 큰 바람에도 끄덕 않는 거대한 지주가 됩시다.



서 완석 선생님 정년 퇴임

본교에서 4년간 우리들을 지도해 주셨던 연구 주임 서완석 선생님께서 1983년 2월 말로 명예의 정년 퇴임을 하시게 된다.

선생님께서는 지난 1938년부터 교편 생활을 시작하셔서 44년의 세월 동안 서울사대 부속중, 경기중, 도봉여중, 숭덕중 등 여러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는 동안 문교부 장관 표창 4회, 서울특별시의 모범 교사상 등 많은 상을 받으시기도 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교편 생활을 하시는 동안 8·15 해방, 6·25 사변, 4·19 의거, 5·16 혁명 등 사회 격변기를 거치시면서도 오로지 일편단심 교단을 고수하신 것을 생각하면 많은 교훈과 감동을 느끼게 되며 아울러 선생님께서 본교에서 명예스런 퇴임하시는 것은 영광이자 자랑이라 느끼면서도 자못 섭섭한 마음은 금할 수 없다.

이제 우리 서 완석 선생님의 명예스런 퇴임을 맞으며 선생님의 안녕과 축복을 바란다.

우리 학교 교목

개나리

개나리의 끈질긴 생명력에서
불굴의 의지를 배우고
노란 꿈과 푸른 꿈을
키우자

우리 학교 교화

군자란

우아한 꽃, 쭉쭉 뻗어
꾸밈이 없고 운치있게
구부러진 잎새에서 우리는
군자다운 기상을 배우자

한 상섭 선생님 일본 방문

본교 윤리 주임 한 상섭 선생님께서 82년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7일동안 일본 교육 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오셨다.

선생님께서 일본 교육계를 시찰하시는 동안 느끼신 소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 각처에서 체질화된 친절, 근면, 신용을 느꼈으며 이것은 명치 유신 이래의 신교육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일본 부흥의 힘으로 작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작은 행동이 모여 오늘의 일본을 부강케 했다고 보며, 특히 ‘노력한 사람이 대우받는, 노력한 만큼 대우하는 사회’임을 실감했다. 그렇다면 이런 국민적 바탕을 걸러내는 일이야말로 당면한 우리 교육의 급선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관용은 최고의 미덕이다.

겸양이 그 다음 간다.

-천국의 열쇠 中에서 -

〈영시번역〉

It Is a Beauteous Evening

It is a beauteous evening, calm and free,
 The holy time is quiet as a Nun
 Breathless with adoration : the broad sun
 Is sinking down in its tranquillity ;
 The gentleness of heaven broods o'er the Sea :
 Listen ! the mighty Being is awake,
 And doth with his eternal motion make
 A sound like thunder - everlastingly.

Dear Child ! dear Girl ! that walkest with me here.
 If thou appear untouched by solemn thought,
 Thy nature is not therefore less divine :
 Thou liest in Abraham's bosom all the year,
 And worship' st at the Temple's inner shrine,
 God being with thee when we know it not.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번역 교사 최 순실

고요하고 풍요로운,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그 거룩한 순간이 마치 수녀처럼 조용하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숨을 죽인 수녀처럼,
 태양이 고요하고
 고요한 하늘이 바다위를 내려앉읍니다.
 들어 보시오 ! 바다는 거대한 존재가 되어 깨어있고
 영원한 몸짓으로 우희같은 소리를 내는 것을 - 영원히

나와 함께 여기를 거니는 어린아이여 ! 소녀여 !
 그대는 엄숙한 생각에 젖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의 성품이 덜 거룩한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는 모르지만 산은 그대와 더불어 있나니
 그대는 언제나 천국에 있으면서 성전의 내전에서
 기도를 하오.

과학 코너 · 과학 코너 ·



천체 관측

편집부

한자로 하늘을 天이라고 쓰는데, 이 글자를 풀어보면 大자 위에 一자가 더 붙은, 즉 가장 큰 것보다 더 크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天文學이란 굉장히 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교에서 천문학을 전공하는 선배의 말씀으로는, 천문학을 공부하려면 모든 자연 과학 분야인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등에 통달해야 하는, 아주 거창한 학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누구든지 밤 하늘의 빛나는 별을 보고 감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천체는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복잡한 천체의 운동을 모르더라도, 그저 천체를 보고 신비함에 감탄하여 그 곳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마추어 천문가들의 목적이다.

그러나 무작정 하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천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보면 더욱 깊이 빠질 수 있다.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별자리이므로 이 지면을 이용하여 대표적인 별자리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별자리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설과 신화가 있으므로 같이 조사하여 알아두면 천체를 즐기는 데 무척 도움이 될 것이다.

◎ 봄의 별자리

봄이 되면 우리들에게 가장 친근한 '북두칠성'이 북쪽 하늘에 자루를 위로 한 채 높이 떠 있다. 이 자루 끝을 계속 따라가면 '목동자리'의 '아크투르스'라고 하는 밝은 1등성이 있고, 이 별을 지나서 계속 나가면, 또 1등성이 나오는데, 이 별은 '처녀 자리'의 '스피커'라는 별이다. 북두칠성의 자루에서 이 별들까지 연장하여 보면, 하늘에 커다란 곡선이 생기는데, 이것이 '봄의 대곡선'이다.

그리고 목동 자리의 옆에는 '왕관 자리'가 있다. 이것은 공해로 찌든 서울에서는 찾기가 약간 힘든 별자리지만, 시골에서 보면 진짜 왕관이 떠 있는 것처럼 아름답게 보여서 오래도록 인상에 남을 것이다.

◎ 여름의 별자리

8월쯤, 조금 늦은 저녁에 하늘을 보면 1등성 세 개가 큰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여름의 대 삼각형'인 테 바로 여름 하늘을 대표하고 있다.

삼각형 중에서 제일 서쪽에 있는 것이 동양에서 말하는 직녀성이고, 가장 남쪽에 있는 별이 견우성이다. 이 별들을 공해가 없는 시골에서 보면 그 사이로 찬란한 은하수가 흐르고 있어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동양의 전설이 생각난다.

◎ 가을의 별자리

가을에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밝은 별이 드물어서 깨끗한 가을의 하늘이 좀 섭섭하게 보이지만, 하늘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가을의 사각형'은 빼놓을 수 없다. 이 가을의 사각형은 남쪽의 '페가수스 자리'와 북쪽의 '안드로메다 자리'로 이루어 지는데, 안드로메다 자리에는 눈으로 보이는 외계 은하인 유명한 '안드로메다 대성운'이 있다.

◎ 겨울의 별자리

겨울은 가을과는 정반대로 온 하늘의 밝은 별이 모두 집합한 것처럼 밝은 별이 많이 보인다.

별자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오리온 자리가 들판하게 버티고 있는 남동쪽으로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인 '큰 개 자리'의 '씨리우스'가 있고, 그 위로는 '작은 개 자리'의 '프로키온'이 있다. 또, 작은 개 자리 위에는 두 개의 밝은 별을 각각 머리로 하는 '쌍동이 자리'가 정말로 쌍동이처럼 사이좋게 높이 떠 있다.

그 외에도 오각형의 '마차부 자리', '황소 자리' 등 유명하고 밝은 별자리가 많이 보이는데, 역시 겨울은 천체 관측의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나는 하늘의 가장 기초적이고 알아두어야 할 별자리를 설명하였지만, 실지로 별자리를 찾는데는 여기에 설명이 더 덧붙여져야 할 것이다. 책을 뒤져 가면서 별자리를 하나하나 익혀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 익혀 놓은 별자는 좀처럼 잊혀지지 않으므로, 조금 더 하늘에 관심을 가지고, 관측을 한다면 천체에 대한 더 많은 흥미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취미코너 취미코너 취미코너 취미코너 취미코너 취미코너 취미코너

우리는 훌륭한 사진 촬영 기사들

3-6 박문원

카메라는 특수한 사진 기술을 갖춘 사람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인이라면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할 필수품이다. 아동아동 사라져 가는 그리운 추억들을 나의 사진첩에서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는가? 이렇게 가치 있는 카메라를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해서 기초적 지식을 간단히 적어 보겠다.

1. 사진이 찍히는 원리

여러분들은 바늘 구멍 사진기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원리를 이용해 검은 상자에 작은 구멍을 뚫어 그 반대쪽에 필름을 놓으면 상을 촬영할 수 있다. (아래 그림 1 참조) 이것을 '핀홀을 카메라'라고 하며 카메라의 원형이다. 그러나 요즘은 노출 시간, 선명도 문제로 렌즈를 사용해서 촬영하고 있다.

2. 카메라의 종류

현재 시장에 많은 종류의 카메라가 나와 있지만 일반적인 카메라를 대상으로 분류하겠다.

1) 파인더 차이에 따른 카메라

① 투시 파인더식 - 카메라 일부에 파인더창이 있어 여기서 보이는 범위와 화상이 맞도록 만들어져 있다. (사진 2 참조)

② 한 눈 레프식 - 렌즈를 통과한 빛 (=상)을 밀려와 프리즘을 이용해 파인더로 보는 방식이다. (렌즈를 교환할 수도 있다) (사진 3 참조)

2) 내장 노출계의 차이에 따른 카메라

① EE카메라 - 수광창이 있어 자동적으로 노출을 정해주는 카메라이다.

• 조리개 우선식 - 조리개를 정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셔터 속도를 정해 준다.

• 셔터 속도 우선식 - 셔터 속도를 정하면 자동으로 조리개가 정해진다.

• 프로그램식 - 카메라가 조리개와 셔터속도를 모두 정해 준다.

② TTL카메라 - 렌즈를 통과한 빛을 측정하여 파인더 내에 지침으로 표시한다. (대부분 EE카메라는 투시 파인더식 카메라이고 TTL카메라는 한 눈 레프식 카메라이다)

3. 사진을 찍자

여러분들은 사진이 어둡게, 밝게 혹은 뿐옇게 찍힌 것을 본 적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 촬영 기술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도록 하자.

1) 촬영할 때의 자세

사진 촬영 시 자세가 안 좋으면 멀려서 나오는 수가 있다. 특히 1/60초 이하의 저속 셔터일 때 이것이 심하다.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찍으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카메라는 반드시 두손으로 잡자.

- 발은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린다.

- 셔터는 손가락으로만 살짝 누른다.

2) 필름을 확인하자.

필름을 넣고 뚜껑을 닫은 후엔 필름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자. 먼저 필름 되돌려 감기로 필름의 느슨함을 없애 후 필름을 감을 때 이것이 따라 돌면 성공이다.

3) 노출을 정하자(조리개와 셔터 속도)

노출은 조리개와 셔터 속도를 이용해서 정한다. 노출이 부족하면 사진이 어둡게 나오고 과도하면 밝게 나오기 때문에 사진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요즘은 자동(EE)카메라의 등장으로 별 문제는 없지만 보통 조리개 F8에 셔터 속도 1/125초라면 실의 애선 무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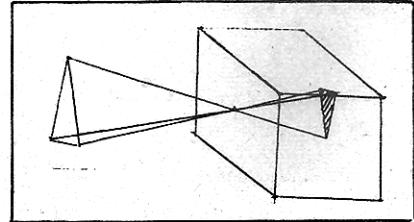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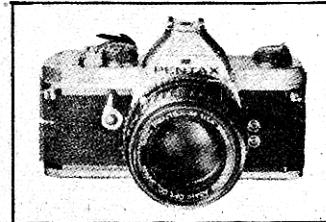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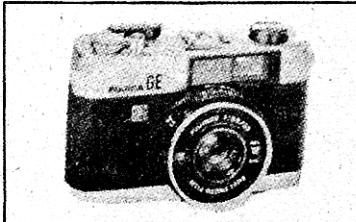
① 조리개의 역할

조리개는 광량을 조절하는 장치로서 숫자가 작을수록 조리개가 커진다. 조리개는 노출을 정하는 것외에도 펜트가 맞는 범위를 조절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조리개를 조이면 조일수록 펜트를 맞추기도 쉽고 또 선명하게 나오는 범위도 길어진다. 그러므로 뒷 배경까지 선명하게 나오게 하려면 조리개를 조여 주고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면 된다.

② 셔터의 역할

셔터는 광량 시간을 조절하며 움직이는 물체를 잡을 때 큰 역할을 한다. 보통은 1/60초 정도로 찍을 수 있으나 격렬한 스포츠, 달리는 차등을 찍을 때 1/250초 이상이 필요하다. 이런 사진을 저속으로 찍으면 흔들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상 사진 촬영 방법을 적어 보았다. 미흡한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 보았는데 무엇보다도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비결은 자꾸 찍어 보는 것이다. 필름이 안들어 있는 상태라도 펜트를 맞춘다면 노출을 맞추는 등 자꾸 연습을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위의 간단한 지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매우 기쁘겠다.



•우리들의 페이지•우리들의 페이지•우리들의 페이지•우리들의 페이지•우리들의 페이지•



Rock'n' Roll



[1] 의 미

록큰·롤을 간단히 정의한다는 것은 자칫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잘못 정의하다 보면 록큰·롤의 본질보다 축소된 부분만을着重 표현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8년을 지내오면서 록을 관찰해 본 우리는 록의 범주 안에 드는 여러 형태의 음악과 춤만도 수천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록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음악 가운데 전자와 전기의 힘을 가장 많이 사용한 음악이다. 그리고 록 음악 안에는 클래식에서부터 재즈, 라틴 음악, 아프리카의 민속음악에 이르기까지 융합되지 않은 게 없을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Roy Chales도 록 음악을 연주했다고 할 수 있고 Chicago도 재즈 밴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명할 수는 없다. 록은 듣는 음악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스테이지에서의 극치 또한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2] 탄생

1953년 Bill Haley & Comet는 싱글 〈Crazy man Crazy〉를 발표했다. 그 당시 이 곡은 큰 주목을 끌지는 못했지만 오늘날의 음악인들은 이 때를 록큰·롤의 탄생기로 보고 있다.

[3] 종류

◎ 프로그레시브·록(Progressive Rock)

보통 줄여서 프로그레 라고도 한다. 프로그레란 그 단어 그대로 진보적이며 혁신적인 록큰·롤을 말한다. 그러나 이 진보적이며 혁신적이라는 표현을 다분히 주관적인 것으로써 그 진정한 의미는 의식적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고 그 속에 이제까지 없었던 이미지나 메시지를 표현하겠다는 뜻이다. 더욱 쉽게 말한다면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인상이 약간은 새로운 것이구나 하면 그것이 프로그레·록이 된다.

대표적 그룹 : Pink Floyd, Yes, Camel King Crimson, Genesis, Kraytwerk 등

◎ 하드·록(Hard Rock)

한마디로 말해서 하드한 록큰·롤이다. 그 이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록 뮤직은 이 하드·록의 범주에 속한다. 프로그레·록과 평크·록이 이 하드·록에서 파생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정확하게 지적할 수는 없지만 격렬한 리듬과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면 하드·록이라고 보아도 무방

하다. 해비 메탈(Heavy Metal)이라는 용어로도 쓰인다.

대표적 그룹 : Led Zeppelin, Deep Purple, Aerosmith, Kiss, Rainbow 등

◎ 평크·록(Punk Rock)

최근에 들어서는 New Wave(새로운 물결)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74년 경부터 런던, 뉴욕을 중심으로 급작스럽게 일어난 것으로 밀어닥치는 것과 같은 빠른 리듬과 과격한 가사, 짧은 머리에 도전적인 패션의 그 특징이다.

대표적 그룹 : Sex pistols, Clash Stranglers, Elvis Costello, Generation X 등

◎ 웨스트·코스트·록(West Coast Rock)

미국 서해안, 여기에서 탄생한 록큰·롤은 그 곳의 온화·건조한 기후에 알맞은 명랑하고 경쾌하게 그 사운드를 구성하고 있고 가사에서도 이러한 생활을 반영시키고 있다.

대표적 그룹 : Eagles, Beach boys, Jeyerson Starship, Crosby Stills, Nash & young, Doors The byrds 등

◎ 레게·뮤직(Reggae Music)

자마이카의 민속음악에서 유래된 것으로 봄·머리가 대표적 인물이다.

◎ 재즈·록(Jazz Rock)

재즈의 요소를 주입시킨 록 장르로 60년 말엽부터 발생

대표적 그룹 : Chicago, Blood, Sweet & Tears 등

◎ 포크·록(Folk Rock)

포크·록은 글자 그대로 포크·송의 감각에다 록큰·롤을 가미시킨 것

중심적 존재 : Simon & Garfunkel, Mamas & papas 등

[4] 맷음말

록은 지난 28년동안 시대를 반영하는 음악으로서 발전해 왔다. 더군다나 비틀스의 등장 이후로는 지금껏 없던 사회와의 관계가 깊어졌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음악은 제외될 수 없는 일부분이며 특히 주류를 점하고 있는 록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록은 어느 사회에서나 젊은이들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음악성과 사운드의 변화에 있어서,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커다란 출기를 이루고 있으며 영원하다 하겠다.

• 삼선문단 •

〈수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3-1 국 승 역

“배가 불려서 만족한 꽈지가 되기 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참 사람의 자격이다. 옛 사람들은 사람을 그릇에 비유해서 생각했다.

사람을 말할 때에 그 그릇이 작으니 크니 하고 말한다.

사람은 진리를 담은 그릇이다. 사람은 자기의 그릇 크기 이상의 것을 담지 못한다. 그러므로 기본 문제는 자기의 그릇을 키우는 일이다. 이것이 가장 혁명한 일일 것이다.

부모에 불효한 사람이 좋은 크리스챤인 체해도 믿을 수가 없다. 신앙은 감사함을 느끼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부모의 은공을 모르는 사람이 신의 공덕을 느낄 수는 없다.

“맛없는 음식과 낡은 의복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과는 함께 진리를 이야기하지 말라.”고 공자는 말 씀했다. 사람은 반찬 그릇이 아니다. 사람은 웃결이 아니다. 잔디에게 노벨상을 못주었으나 그 상도 대단찮다. 참으로 위대한 인물로 상받은 이가 별로 없다.

소크라테스에게는 약사발이, 예수에게는 십자가가, 링컨과 잔디에게는 권총탄환이 그들에 대한 훈장이었다.

독일의 최고 훈장이 철십자였던 것은 흥미있는 것 이었다.

우리의 최대 비극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자아의 상실’이다. 그래서 “네 자신을 알라”라는 처방이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아는 바람에도

나는 꾀로위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 가야겠다.

오늘밤에는 유난히도 별이 반짝인다.

웬 일이지?

〈시〉

모래성

3-12 고 유 석

저 멀리 수평선에

바닷물 반짝이고

갈매기 노래한다.

탁트인 문을 지나

연못을 가로질러

아름다운 성(城)이 있다.

마치 동화 속의 왕궁같은

네 개의 기둥 위로

둥근 탑이 서 있고

그 위엔

조개 꽂이 활짝 피었다.

꼭대기에는

하얀, 눈보다도 더 하얀

조약돌 왕국이……

한 줌 한 줌 쌓인 흙에

한 가지씩의 꿈이 깃들고

한 개 한 개 하얀 조약돌에는

한층 더 하얀 내일이 들어 있다.

겹겹이 높아가는

우리들의 성

공주님 방

왕자님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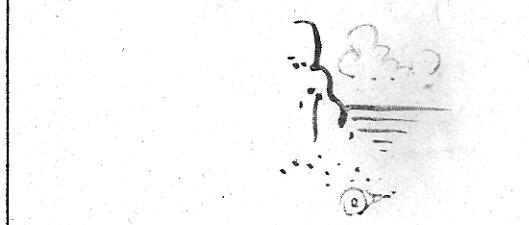
이건 우리 방

그 아름다운 성으로

멀리서

하얀 파도가

조용히 밀려온다.



<수필>

행 복



3-14 김기현

“즐거움은
행복은
뉘 것?
누릴 자
누구?”

김동인씨의 단편소설 ‘무지개’에 나오는 한 문구이다.

나는 이것을 보고는 무심코 명상에 잠겨, 설명하시는 선생님의 설명도 듣지 않고 행복이란 것의 정의를 내 나름대로 내려 보려는 욕망에, 행복이란 정체불명의 존재에 내 상상의 나래를 펼쳐졌다.

행복! 행복!

파연 이것은 무엇일까? 무엇이길래 인간들은 이 것에 가뭄 중에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절망하여 마지 않는 것일까? 또 어떤 행복이 진정한 행복일까?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는 아기의 얼굴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선망의 대상자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잠자는 어린이의 얼굴에서는 천진함과 평화로움은 느낄 수 있어도 행복함과는 좀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선망의 대상자가 무조건 행복하다는 의견은 선망의 대상자가 자기 나름대로 불행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므로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내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렸다.

그것은 ‘정당한 일을 정당히 해냈을 때 그것이 행복이다’ 하는 것이다.

조각가를 보면 하얀 석고를 예리한 조각도로 정신과 몸을 하나로 하여 파고 또 파고 다듬고 갈고 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만들어 냈을 때 그 조각가는 이마의 땀을 닦으며 자기 생애에서 가장 행복해 할 것이다.

나는 이 생각을 하다가 또 하나의 정의를 덧붙여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진정한 행복에는 노력이 따른다는 것이다. 노력이 따르지 않는 행복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노력이라는 말 속에는 고난이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일러 주고 싶다.

참되고 진정한 행복은 옳은 일을 정하여 옳은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고난을 이기며 달성했을 때 생기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에 처해서는 신념으로 극복하라고……

<시>

구월에



2-2 송근호

하늘은 깊어 가고

구름은 비껴 간다.

여름, 그 뜨거움은

잠자리 꽁지에 와

머리 속인다.

담밀엔 귀뚜라미 소리

산에는 향기로운 솔내음

여울어 가는 하늘을 바라보는

허수아비 옷자락엔

가을이 묻어 나린다.

〈수필〉

꿈

2-7 정연호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 그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있다. 그 꿈이 언젠가는 꼭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이 있어 우리는 미래를 동경하며 살아간다.

꿈은 항상 우리들을 성실하고 활기차게 해 주며 끝없는 호기심의 세계로 끌어들이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이 꿈이란 말을 아주 좋아한다.

내가 국민학교에 다닐 때 언제부터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께서 “꿈을 가져라, 꿈을”하시는 말씀을 늘 내게 해 주셨고 중학생이 된 후론 “Boys, be ambitious”란 말을 곧잘 일러 주셨다.

“소년들아, 야망을 가져라.”란 말로 풀이할 수 있는 이 말은 특히 아버님께서 좋아하시고 또 내게 일러 주시던 말씀이시다. 꿈이 있는 사람은 허약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으며, 용기있고 성실한 사람임을 강조하시곤 하셨다.

꿈! 꿈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내 꿈은 그동안 나의 성장과 함께 많이 변화해 왔다. 국민학교 1, 2학년 땐 TV 만화영화에 나오는 로보트를 갖는 것이 꿈이었다. 내가 그 로보트를 타고 악당들을 쳐부수는 것이 그때의 내 꿈이었다. 그러나 4학년쯤 되었을 때는 꼭 권투선수가 되고 싶었다. 샌드백을 걸어 놓고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땀을 뻘뻘 흘리며 힘껏 한 편치를 뺏어 보곤 했었다. 그 때는 KO를 먹이고 두 주먹을 V자 모양으로 번쩍 쳐든 프로 권투선수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멋져 보였으니깐. 5학년 겨울방학을 맞아 어머님께서 여러 가지 책을 사 주셨는데 나는 그 중 퀴리부인을 흥미있게 읽은 후론 점점 내 꿈이 다시 한번 탈바꿈을 하려고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6학년 졸업을 앞두고 담임선생님께서 교지에 실릴

‘자기의 장래 희망’에 대한 것을 쓰라 하실 때 난 서슴없이 ‘세계적인 물리학자’라고 썼다. 나는 꼭 내가 물리학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은 사명감 속에 물리학자들의 이야기를 주어 모아 읽어 가며 그들보다 더욱 훌륭한 물리학자가 되어 세계 속에 한국을 빛내 보리라고 다짐했다. 지금도 내가 간직하고 있는 국민학교 마지막 교지인 “푸른교실”에 ‘6학년 2반 정연호, 세계적인 물리학자’라고 분명히 인쇄되어 있다.

며칠 있으면 중2 겨울방학이 시작된다. 벌써 중3을 눈 앞에 두게 되었다.

중1 때 나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미국여행을 하고 돌아온 후론 내 꿈인 물리학자도 어쩔 수 없이 퇴색돼 가고 있는것을 알 수 있었다.

세계를 알자!

그들 민족들이 창출해 낸 독특한 문화를 접해 보자. 지구촌의 한 칙구로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느낄 수 있도록…….

세상은 넓다. 바다 밖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지구 동북쪽의 조그만 나라의 젊은이로서 세계를 누비며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세계의 젊은이들과 사귀어 보자. 대화를 나누어 보자.

그리고 반만년의 우리의 훌륭한 문화를 그들에게 알리자. 나는 이 꿈이 꼭 실현되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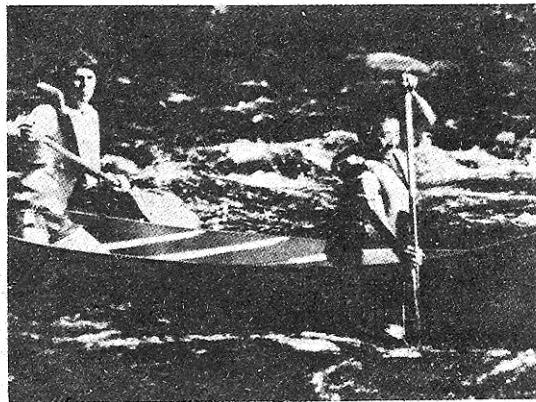
꿈이란 정말 좋은 것, 아니 꼭 필요한 것이다. 나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그 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꿈을 갖자. 사람이 꿈을 잃으면 그 순간 인간의 인생은 끝나는 것이다.

〈미국 방문기〉

해외 연수를 마치고

3-6 조준희



사회적·정치적 이념을 벗어난 44개국 400여명의 청소년들이 안으로는 힘과 氣와 美를 견주고, 밖으로는 세계평화라는 궁극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년 미국 Hillsboro Village New Hampshire주에 있는 인터록큰(Interlocken)의 광장에 모인다.

‘세계 청소년이여, 하나가 되자’라는 구호 아래 약 한 달 간의 고된 단체 생활에 들어가게 된다.

나는 한국 청소년 대표의 일원으로 1981년 8월 2일에서 1981년 9월 3일까지 실시되었던 인터록큰 프로그램 중 하나인 자연탐사반(Wilderness)에 참가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자연탐사반은 중학교 2학년 이상의 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북아메리카의 광대한 자연 속에서 생활하고 여행하면서 자연을 연구, 탐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8月2日〉

밤 10시30분

엔진의 평음과 함께 비행기가 활주로를 미끄러져 간다.

파연 잘 해 낼 수 있을까? 나 하나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도, 또한 혜손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막대한 책임감이 밀려온다.

반드시 한국인의 긍지를 미국땅에 심어 주고 오리라……

〈8月5日〉

자연탐사반 입단식을 가졌다.

리더 2명을 선두로 나와 정렬이를 비롯하여 미

국, 영국, 프랑스에서 온 친구들, 모두 9명이 앞으로 한 달 간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가장 어리고 신체적 조건도 불리했지만 정신력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내일부터의 고된 훈련에 대비하여 충분한 수면을.

〈8月12日〉

카누우(canoe)를 배웠다.

카누우란 미국 인디언들이 사용하던 좁고 긴 배로서 통나무나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나와 프랑스 친구인 에릭이 한 조가 되어 열심히 노를 저었다.

곳곳에 우뚝 솟은 바위와 굽류에 눈코뜰새 없이 에릭과 호흡을 맞춰 전복되지 않고 무사히 빠져 나왔다.

미국 오대호 중의 하나인 슈퍼리어호에 연해 있는 호수-한강의 10배 정도 크기 -를 청단하는데 아침 10시에 출발하여 저녁 5시에야 비로소 끝낼 수 있었다. 허기와 피곤과 추위에 온 몸의 마비현상-쉴 새없이 노를 저온 탓으로 -까지 겹쳐 최악의 상태에서 품아떨어졌다.

〈8月17日〉

암벽등반을 했다.

아침 일찍 아카디아 국립공원을 찾아서 해안에 접해진 암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수직벽을 타기란 정말로 어려웠다. 100m나 되는 암벽을 중간쯤 왔을까, 밧줄만을 의지하여 대롱대롱 매달린 나의 몸은 거의 탈진 상태가 되어 버렸다. 아래를 보니 현기증이 났다. 위에도 역시 무정한 암벽뿐이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기어코 해 내야겠다는 일념에 다시 온 몸에 힘이 솟아 무사히 등반을 마칠 수 있었다. 초코렛과 과자 2쪽만이 내가 먹은 점심식사의 전부였다. 아! 엄마가 끓여 주시던 김치찌개가 눈앞에 어른거린다.

〈8月24日〉

고된 탐사 생활의 재정비를 위해 본부의 여름캠프(International summer camp)를 방문했다.

여름캠프에 참가하고 있던 9세~15세의 어린이들에게 출타기 시범을 보여 주었다. 리더는 나와 에릭과 게리를 시범대원으로 선발하였다. 도르래가 연결되어 있는 200m의 굵은 쇠줄을 타고 언덕을 미끄러질 때 모두들 환호성을 질렀다. 전봇대처럼 획득지나갔고 환호성과 박수소리만이 내 귓전을 울렸다.

이 시범이 끝난 후 여러 어린이들의 우상이 된 것

〈수필〉



낙엽 사이로

3-4 장 길 수

낙엽 한 잎을 주워서 하늘을 향해 던져 보았다.
그 파아란 하늘 사이로……;

그리고 생각해 본다. 봄부터 가을까지를……

“봄” 봄은 無에서 有를 창조하듯 생명이 하나 둘
피어오른다. 오랜 휴식을 깨고 그려는 동안 생명에
활력을 불어 준 여름의 다사로운 햅볕과 따뜻한 바
람이 불어 어느덧 모든 생명은 그 활기를 자랑하
지만 어느 새 나뭇잎이 하나 둘 색이 바래간다.

오곡백과와 일의 보람이 항상 들판에 담겨져 있는
가을이 어느덧 우리의 옆을 스쳐가고 있는 것이다.

붉은 노을에 하나 둘 낙엽이 땅에 떨어지고 쌀쌀
한 가을바람이 나의 외투를 스치며 낙엽 사이로 사
라져 버렸다.

이제 이 가을이 지나면 중학교 3년 생활을 마치
고 새로운 나의 인생을 해쳐 나갈 고교진학!

약간의 허무함이 들기도 하는 나의 맘을 가을의
낙엽 속에 파묻어 버리고 싶은 까닭은?

나는 노오란 은행나무잎을 좋아한다. 그래서 다락
방에 올라가 옛날 책을 꺼내 보면 형과 누나의 책
속에는 갖가지 단풍잎들이 고이 들어가 있지만 나
의 작은 책 속에는 노오란 은행나무잎만이 끊혀져
있다. 노오란 은행나무잎은 이제 보아도 삶중이 나

지 않아서 일까?

아! 벌써 창가에는 낙엽이 수북히 쌓여 가고 있
다.

창가에는 어디서 날라온 낙엽인지는 모르지만 그
들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있던 자리에 새
잎들이 새싹을 내고 그 푸르름을 빛내 주기를……”

그려고 보니 나도 졸업이라는 낙엽이 되어 새로
올라올 3학년을 위하여 나가는 기분이 드니 낙엽
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나도 낙엽처럼 새싹을 위하여 물려나듯 책결상을
새 3학년에 물려 주고 떠나야 하는구나”라는 생
각이 말이다.

낙엽은 모든 사람들에게 쓸쓸하고 절망감을 심어
주고, 쫓기는 도망자와 뛰쫓아가는 추격자를 만들
기도 한다.

아! 벌써 빠알간 저녁노들이 젖게 깔리고 있다.
노오란 은행나무잎도 그 빠알간 노들의 그림자 속
에 파묻힌다.

저녁의 불빛이 벌써 여기저기서 하나 둘 켜지고
왠지 나도 모르는 의로운 느낌에 젖어 낙엽 사이로
걸어가고 있다.

긴 가을의 그림자를 넘겨 놓으며……

〈앞면에서 계속〉

같았다(착각?)

모두 나를 보면 “Hi you were great!”하면서 때
라다녔다. 역시 용기란 좋은 것이구나, 웬지 내가
한꺼번에 많이 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저녁 식사 후 엔딩 파티와 가장 무도회를 했다.

아파치로 변장하여 기회는 이 때다 하며 백인 아
이들을 잡아서 마구 때려 주었다. 통쾌하고 기분좋
은 하루였다.

오후에는 낮잠 시간까지 있고 푸짐한 식사와 자유
시간까지 있으니 천국이라는 생각이 절로 났다. 오
늘은 평안히 침대에서 잠들 수 있게 됐다 침대에서.

〈9月2日〉

‘내일이면 1달 동안 고락을 같아했던 친구들과 헤
어지는구나’하고 생각하니 섭섭한 마음. 그지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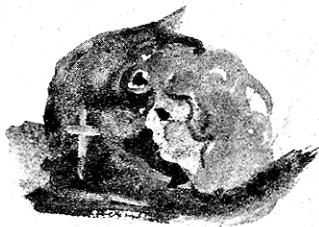
송별회 파티에 참석, 특별 메뉴로는 불고기가 나왔
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자유 시간, 선물을 교환하
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 마지막 날을 아쉬워하며 우
리는 토론의 열기를 뿜어 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
이고 사진기 프레쉬가 인터록큰 둑근 산을 대낮같
이 밝혔다.

안녕! 정들었던 인터록큰이여!

근 1달 동안을 객지에서 보낸 나는 경험을 통해
나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인식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키웠다고 생각한다.

요번 캠프생활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경제력 배
양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으며 나도 이제 조국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독후감>



좁은 문

2-7 박민영

알리사와 제롬의 사랑!

너무나 순결한 행복을 추구하며 꾀로와하다 끝내 비련으로 끝나는 두 영혼의 아름답고도 슬픈 사랑의 이야기.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여러 번 웃잔등이 시큰해 웃을 느꼈다. 지이드는 1947년 82살로 노벨 문학상을 받아 세계적인 작가로서의 화려한 총장을 장식하였다. 깊은 감동이 나의 마음 속에 파고들어 가는 것을 느낀 작품이다.

제롬은 12살이 채 못 되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밑에서 우울하게 자라나던 중 의사의 권유로 휴양을 위해 뷔콜링 외삼촌 집에 간다. 외삼촌 집에는 알리사, 줄리에트, 로베르 세 사촌이 있었다. 제롬은 차츰 사촌 누이인 알리사에게 정을 느끼게 된다. 제롬은 나이가 들면서 알리사의, 지상적 행복에 취해 정신을 잃은 어머니의 부정에 대한 고민을 알고, 그녀를 보호해 주고 싶은 깊은 사랑을 느낀다.

또 어느 날 철교에서 들은 좁은 문, 최대한으로 노력해 들어가는 문에 알리사와 함께 다다르리라고 다짐한다. 어느 날 자상하시던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아무 일도 손에 잡지 않으나 친척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전처럼 공부에 열중하게 된다. 청년이 되어 제롬은 알리사에게 결혼의 뜻을 비추나, 제롬에 대한 사랑과 덕의 완성이라는 모순 속에 꾀로와 하던 알리사는 제롬을 피한다. 한편, 제롬의 사촌 누이 동생이요 알리사의 여동생인 줄리에트는 명랑, 폐활하며 현실적 행복에 만족하는, 알리사와는 대조적인 사람이다. 그녀는 차차 제롬을 사랑하게 된다. 이것을 안 알리사가 동생에게 제롬에 대한 사랑을 양보하려하자, 그녀는 마음에도 없는 포도밭 주인 테세르와 결혼해 버린다.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 온 제롬은 알리사와 만나 행복 이외의 승고함을 내세우는 알리사의 말에 번번이 실망을 느끼게 된다. 제롬은 한참 동안 그녀

와 만나지 않게 된다. 3년 뒤 제롬은 다시 그녀를 만난다. 그녀는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었다. 제롬은 그녀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이 때, 제롬은 여태까지 자기를 거부 해 왔다는 이유를 물으나 차게 대하던 알리사는 다만, 결혼을 해서 태어나는 제롬의 딸에게 자신의 이름을 붙여 달라 하고, 때가 늦었다고 말하며 그 자리를 떠난다. 이것이 그녀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몇 달 뒤 줄리에트에게서 폐병으로 알리사가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녀의 일기장을 받는다. 그 일기장을 읽고 난 제롬은 천국에서 자기와의 영원한 만남을 희망한 알리사의 뜻을 알게 된다. 힘을 모아 좁은 문에 들어간 알리사를 훌륭히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 자신도 죽을 때까지 힘을 모아 좁은 문에 이름으로써 알리사와의 영원한 만남을 이루하겠다고 다짐한다.

참으로 아름답고 슬픈 두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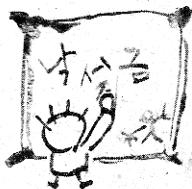
제롬과 알리사의 사랑.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이른바 천상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 알리사의 지상적인 행복의 포기와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극기주의. 이것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나는 그녀의 마음에 뿌리 박고 있는 천성적인 금욕주의 때문이라 생각한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책을 덮지 못할 흡인력을 느꼈다. 읽는 사람에게 고뇌와 도취를 준다.

너무나 순수한 사랑! 참으로 아름다운 작품이다. 또한, 우리 모두 최대한으로 노력해 들어가는 좁은 문에 이르도록 힘써야겠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는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이가 적다.”

알리사와 제롬의 사랑을 슬프지만 승고하게 승화시킨 말을 조용히 생각해 본다.



졸업생 앙케이트



◎ 가장 인상에 남는 수업 시간

- 이 의설 선생님의 “선생님 눈동자를 따라다니자” (전상엽)
- 미술 선생님의 지나온 인생관을 들을 때 (이혁)
- 최 순실 선생님과 함께 한 영어 연구 수업 (김범상)
- 퓨 찬세 선생님의 물상 시간 (신종욱)
- 퇴장 당할 줄이야! -영어 시간에- (박희준)
- 1학년 물상 시간에 숙제를 안해서 하루 종일 벌 받은 일 (박문원)
- 영어 시간에 떠들다 밖으로 밖으로 추방된 일 (문성욱)
- 수업 시간마다 주무셔서 잘 모르겠음 (손동기)

◎ 지금 가장 가지고 싶은 것

- 시간 (유경선)
- 宇宙, 온 우주를 내 품에 (김형렬)
- 물질적인 것 - 출력 좋은 앰프
- 정신적인 것 - 높은 I.Q. (정현석)
- 이 세상 모든 것 (김종윤)
- 친구라면 하늘까지 포기하는 우정 (김영석)
- 제주도 여행권 10장 - 약혼 여행용 5 쌍 - (류탁의)
- 나와 마음이 통하는 진실한 친구 (문성욱)
- 물론 당연하게 ××지 - 지금은 없음 - (손동기)
- 여드름 특효약 (김한승)
- 미래를 볼 수 있는 구슬 (유재권)
- 다이아몬드, 금, 은, 사파이어 (박찬진)
- 순진한 여학생 (이상엽)
- 만점짜리 연합고사 시험지 (최상철)

◎ 읽은 책 중 인상 깊었던 책

- 폭풍의 언덕 - 아름다운 배경과 인물을 잘 묘사- (이화진)
- 어린 왕자 (정지원)
- 베니스의 상인 (김종윤)
- 쿠바디스 (김범상)
- 생활의 지성 - 나에게 인생과 교양에 대해 재인식 을 시켜 주었다 - (박문원)
- 테스 - 너희 간음하지 말지어다 - (류탁의)
- 노인과 바다 - 늙은 노인의 투지 - (문성욱)

• ‘탈무드’ 속에 가득 차 있는 좋은 말들 (명용상)

• 성경책 (유재권)

◎ 이성 교제에 대해 한 마디

- 미리 생각해서 사귀어라, 그러면 즐거우리라. (김형렬)
- 각자 알아서 해야지. (이화진)
- 정신적으로 끝고 풍족하면 뜻 있는 것일 것이다. (김영석)
- 대 친성이다. 그리고 전 학교의 남녀공학을 주장한다. (손동기)
- 너무 열중하지 말고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많 기를…… (이선희)
- 생각을 말았으면…… (유재권)
- 누구나 하고 싶어하고, 누구나 해야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 (이상엽)
- 주머니 사정만 팬찮으면 언제든지 하겠다. (유승범)
- 그건 꽂이립니다. (박희준)
- 나처럼 잘 생겼으면 이성교제도 팬찮은데! (최상철)
- 여자! 별거 아니야. (김한승)
- 자기 정서 발전 요소가 되고 교우 관계가 더욱 두텁게 된다. (이혁)

◎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남기는 말

- 실내에선 제발 경숙하라! (정현석)
- 선배들의 전철을 밟지 말기를 - 물론, 장점은 받아 들인다 - (김용인)
- 야! 누구 누나 있냐? (손동기)
- 용용! 죽겠지. (최상철)
-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현준호)
- 공부 외에도 마음을 쓸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사귀어라. (박찬진)
- 포기할 줄 알면서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라. (명용상)
- 삼선의 전아로서 군자란의 모습을 탑아 노력하고 더욱 면학 정진하자. (김영석)
-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후회없는 중학 생활이 되기를…… (유경선)

<시>

가로수

3-6 박 흥근

달빛 아래 가로수
쓸쓸한 거리의 파수꾼

숨막힐듯 복잡했던 지난 하루
메마른 인정에 시달리고도
아무런 불평없이
성인의 자태를 풍기며
조용히 서 있는 가로수

그는 고개 숙이고
지난 하루를 반성한다.

시골서 오셨다면서
잠시 쉬어가며
시집 간 딸 이야기를 해 주시던
할아버지

자전거 운전 미숙으로
얼굴을 부딪치고는
한참 욕을 퍼붓던
입이 큰 젊은이.

장난삼아
'미안!' 하고는 가지를 꺾어간
어느 키작은 소년.

모든 하루를 반성해 보며
다만 나무는
묵묵히
어두운 가로등 아래서
쓸쓸한 거리를
지키고 있다.

<편집후기>

◎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밤 늦게까지 남아서 일한 것들을 생각하면 모두 끝났다는 것이 스스로 대견스럽게 느껴지며, 우리와 빔늦게까지 남아서 도와 준 박 문원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 원고를 정리하면서, 부족한 나의 능력이 한스럽기도 했지만, 그동안 내가 경험한 것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지도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종-

◎ 고진감래라는 말이 부끄러워 진다. 제대로 신경쓰지도 못한 채 완성해 나간 창간호.

신문 편집이라는 넉살좋은 이름아래 원고만 주무르고, 선생님께서 하시는 것을 엿보기만 하면서 시간만을 쫓아갔던 편집일.

어렵게 넘겨갔던 원고들을 보고 있자니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아쉬움보다는 불안감이 앞서 는구나! ?

-현-



- 편집기자 -

박 수 종 (3-11)
송 창 현 (3-14)

발행인: 원사봉

편집인: 삼선중학교
학생회

발행일: 1983년 1월 20일

발행처: 삼선중학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140-1

인쇄소: 대동인쇄소